

詩語의 意味 解釋

최 주 일*

1

인간의 언어처럼 인간을 괴롭히는 일은 또한 없을 것이다. 언어가 갖는 여러 가지 많은 機能[作用]이 그러하며, 한 단어[詩語]에 여러 개의 많은 多意性이 있는 데다, 언어의 不可思議가 그를 잘 말해 주고 있다.

本稿는 이번 玄谷 梁重海 교수의 回甲 論文集에서 華甲을 기리는 뜻에서, 詩를 이해하는데 한 가닥 관련이 있지 않나 하여, 선생님의 '馬羅島'란 시 한 편을 갖고, '詩語의 의미 해석'을 언어학의 意味論의 입장에서 주로 '언어의 의미'면에서 살피기로 한다.

2

馬 羅 島

파뚏소리만
갈매기 우는 소리만.

* 제주대학교 교수

2 玄谷 梁重海博士 華甲紀念論叢

강남가는 철새가
마지막으로 죽지를 쉬고 가는

남쪽 하늘 다한
조국 땅의 끝.

밀물이 밀려오면 썰물이 내려가고
썰물이 내려오면 밀물이 오는 것을

오면 가지 마라
가면 오지 마라

그 이름 그 전설이
너무 고와 슬픈 섬.

낮에는 흰 구름
아득한 돛배

잠 못 이루는 밤은
등댓불 밝혀 놓고

어디
개 짖는 소리도 없이

한스런 애기 잠수
호느끼는 목소리로

파뚱소리만
갈매기 우는 소리만.

어찌보면 이 시에서 시인이 전달·표현하고자 하는 뜻[정서, 심정, 감정]은, “남이 하는 말의 眞意를 알지 못하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을 올바르게 이해할 길이 없다 [不知言, 無以知人也].”는 말이 있듯이, 독자들의 共感 속에서만이 오로지 그 참된 의미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시의 素材는 어디까지든지 ‘포에지(poesie)’여야 하겠지만, 시(poem)는 언어에 의존하고 있기에, 구체적으로 시로 표현되려면 아무래도 언어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다. 시의 생명이 발휘되려면 언어의 힘을 妙理있게 구사하여야 한다. 그러면, 시인은 언어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구사하여야 할까? 언어에 대하여 얼마만한 이해를 가져야 할까? ‘포에지’ 자체가 벌써 작가 개인에 따라 각각 다르겠지만, 그 비밀이 언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작가 자신에게 더 많이 달려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작가로서 언어의 기능이나 性能부터 透視하지 않고는 그 언어의 신비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언어의 性能[작용, 속성]은 무엇일까? 첫째 요소는 뜻[의미]이다. 둘째 요소는 情調다. 또 하나는 음성이다. 이 세 요소 중 ‘情調’는 그 말의 뜻[의미]에 수반되는 聯想이라 할 것이다. 情調는 이 연상으로 인하여 받는 바 느낌이다. 이를 흔히 語感이라 한다. 그리고 이 語感이 독자에게 주는 印象의 素因은 대단히 복잡하다. 시에서 이러한 情調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① 그 말이 가진 의미 자체가 주는 인상으로 인하여 뜨거움, 차가움, 쌀쌀함, 快感, 공포 등 각각 달리 느끼게 된다. ② 작가가 말로써 어떠한 사실을 表明할 때, 그 사실에 대한 작가의 태도[또는 문체]로 인하여 인상이 달라지게 된다. ③ 작가가 독자에 대한 태도[문체]로 인하여, 어떠한 말로써 작가가 독자를 경계하는 것인지, 타이르는 것인지, 독자에게 권고하는 것인지, 하소연하는 것인지가 작가의 태도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시에 있어서는 어느 문학보다도 이 情調面을 최대한 活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세째 요소인 음성을 음악적으로 구성시키는 것이 ‘리듬[韻律]’이다. 이 리듬도 시의 가치를 좌우하는 요인의 하나다. 이 점에 대해 E. A. Poe는 “시는 美의 운율적 창조”(Poetry is rhythmical creation of beauty)라고 지적한 바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시는 ① 의미(뜻), ② 情調, ③ 리듬[韻律]이 그 표현되는 내용에 따라 적당히 안배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즉 詩的 表現이란 ‘의미+정조+리듬’의 안배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그 시에 쓰인 ‘詩語의 의미’를 알아야만 한다. 작품에 표현된 詩語가 갖는 의미를 이해하여야 한다. 가령, 다음과 같은 문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자.

- | | | |
|------------------|---------|------|
| (1) 우리는 이 시를 어떻게 | ㄱ. 이해할 | 것인가? |
| | ㄴ. 파악할 | |
| | ㄷ. 해석할 | |
| | ㄹ. 소화할 | |
| | ㅁ. 인식할 | |
| | ㅂ. 받아들일 | |
| | ㅅ. 느낄 | |
| | ㅇ. 볼 | |
| | ㅈ. 鑑賞할 | |

文 [1]에서 ㄱ~ㅈ의 단어[어휘]들의 표현은 각각 그 단어가 갖는 의미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문맥상[화용상]의 뜻은 약간 뉘앙스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필자[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뜻[意圖]은 모두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3

이제 우리는 ‘마라도’의 시에 쓰인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 Ogden & Richards(1923:186~187)의 ‘의미’에 대한 定義를 소개하기로 한다.

‘의미(meaning)’란——

- | | | |
|---|---|---|
| A | { | 1. 內在的 特性 …………… (상징의 외연) |
| | | 2. 다른 사물에 대한 獨自의 분석 불가능한 단계…………… (상징의 내포) |
| B | { | 3. 사전의 단어에 첨가된 다른 단어들. |
| | | 4. 말의 內包 |
| | | 5. 本質 |
| | | 6. 대상에 投射된 활동……………(은유) |
| | | 7. ① 志向된 사건, ② 意思 |
| | | 8. 어떤 체계내의 사물의 장소 |
| | | 9. 사물이 우리들의 장래의 경험에 남기는 실제적 결과 |
| | | 10. 陳述에 의해 암시되거나 또는 포함된 이론적 결과 |

- L 11. 사물에 의해 야기된 情緒
- C { 12. 선택된 관계에 의해 실제적으로 기호와 연결된 것
- 13. ① 자극의 기억에 미치는 효과, 얻어진 連想
- ② 기억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 타당한 다른 어떤 사건
- ③ 기호가 관계된다고 해석되는 것
- ④ 사물이 암시하는 것
- 상징의 경우
- 상징의 사용자가 실제로 가리키는 것
- 14. 상징의 사용자가 의당 가리키고 있으리라고 보는 것 …………… (正用)
- 15. 상징의 사용자가 가리키고 있다고 믿는 것
- L 16. 상징의 해석자가
- ① 가리키는 것
- ② 자신이 가리키고 있다고 믿는 것
- ③ 사용자가 가리키고 있다고 믿는 것

※ 1.2.6.14번의 ()속의 말은 필자가 이해를 돕기 위해 삽입시킨 것이다.

Meaning is—

- A { 1. An Intrinsic Property
- 2. A Unique unanalysable Relation to other things.
- 3. The other words annexed to a word in the Dictionary
- 4. The Connotation of a word
- 5. An Essence
- 6. An activity Projected into an object
- B { 7. ① An event Intended.
- ② A Volition.
- 8. The Place of anything in a system.
- 9. The Practical Consequences of a thing in our future experience
- 10. The Theoretical Consequence involved in or implied by a statement.
- 11. Emotion aroused by anything.
- 12. That which is Actually related to a sign by a chosen relation.
- 13. ① The Mnemonic effects of a stimulus. Associations acquired.

- C
- ② Some other occurrence to which the Mnemic effects of any occurrence are Appropriate.
 - ③ That which a sign is Interpreted as being of.
 - ④ What anything Suggests.
- In the Case of Symbols.
- That to which the User of a Symbol actually refers.
 - 14. That to which the user of a Symbol ought to be referring.
 - 15. That to which the user of a Symbol Believes himself to be referring.
 - 16. That to which the Interpreter of a symbol.
 - ① Refers.
 - ② Believes himself to be referring.
 - ③ Believes the User to be referring.¹⁾

이는 '의미'에 대한 定義를 3그룹으로 묶어 16개의 사항 요소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면 Ogden & Richards의 '의미'에 대한 定義 방식에 따라, 앞 시에서 '마라도'의 詩語 의미를 그에 적용시켜 찾아보기로 한다. 즉 '마라도'가 갖는 詩語의 의미는—

1. '마라도'가 갖는 내재적 특성 [=상징의 외연]
2. 다른 사물에 대한 독자의 분석 불가능한 관계 [=상징의 내포]
3. '마라도'란 말의 내포
4. '마라도'의 본질
5. 대상(마라도)에 투사된 활동 [=은유]
6. ① 志向된 사건, ② 意思, 즉 작가의 志向과 意思.
7. 어떤 체계내의 사물(마라도)의 장소 [=농인 위치 : 조국 땅의 끝.]
8. 어떤 사물(마라도)에 의해 야기된 情緒 [=작가의 정서]
9. ① '마라도'의 자극의 기억에 미치는 효과. '마라도'에서 얻어진 連想.
 ② '마라도'의 기억에 끼치는 어떤 영향이 타당한 어떤 사건.
 ③ '마라도'의 기호가 관계된다고 해석되는 것.
 ④ 사물(마라도)이 지시하는 것.

1) Ogden & Richards(1923). The Meaning of Meaning. pp.186~187.

10. 상징(마라도)의 경우

상징의 사용자가 실제로 가리키는 것.

11. 상징의 사용자가 의당 가리키고 있으리라고 보는 것 …………… (正用)

12. 상징의 해석자가

① 가리키는 것.

② 자신이 가리키고 있다고 믿는 것.

③ 사용자가 가리키고 있다고 믿는 것.

이를 바탕으로 ‘마라도’ 시 전체에서 쓰인 詩語의 의미를 본다면, 1연은 마라도에 가득 차 있는 파뚫소리와 갈매기 우는 소리가 우리 귀에 이미지(Image) 중심으로 자연의 소리가 들려온다는 뜻이다. 그리고 4연은 밀물과 썰물이 교차되는 마라도의 이미지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會者定離나 生者必滅의 원리를 뜻하는 자연의 섭리 [=원리]를 뜻하는 것으로 5연의 人情을 말한 것과 연결된다. 사람이 ‘오면 가고 가면 오는’ 인정을 거역할 수는 없지만, 4연의 그 원리가 여기 인정과 같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지 마라 가지 마라’의 ‘마라’는 마라도의 ‘마라(馬羅)와 음이 같은 시어로 볼 수도 있다. 6연의 ‘그 이름’은 마라도의 ‘마라’인데 그 이름이 너무 곱다는 뜻이고, 그 전설은 ‘마라도 얘기당 전설’로서 10연에 이어지는 얘기잠수에 얽힌 그 전설이 너무 슬픈 섬이란 의미다. 7연과 8연에서 ‘흰구름’은 ‘자연의 생활’인 데 반하여 ‘뚝배’와 ‘등댓불 밝혀 놓고’는 ‘인간의 생활’을 뜻하며, 9연의 ‘어디’는 작가의 意圖에 의한 배려로 마디를 구분지어 이미지 효과를 주기 위한 것이고, 개짚는 소리도 없이’는 俗世와는 멀리 떠나 있는 적막감을 나타내려 한 것이다. 그리고 10연의 ‘얘기 잠수’는 나이 어린 얘기잠수 [=어린 海女]로서 首潛水의 꿈에 어린 얘기잠수가 회생자가 되어 마라도의 바위 밑에 하얀 뼈만 남아 전해 온다는 ‘마라도의 얘기당 전설’에 얽힌 사연의 주인공이다. 끝으로 11연의 ‘소리’는 10연의 그 한스런 얘기잠수의 호느끼는 목소리로 변하여 우리 귀에 들어 온다는 뜻으로 1연의 이미지 중심의 자연의 소리와는 그 뜻이 다르다.

이와 같은 詩語의 意味 등등에 따라 ‘마라도’가 갖는 詩語의 의미가 각각 달리 定義되거나 해석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定義’에 대하여 John Locke(1632~1704)는

“정신에 관한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아는 데에는 定義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고 했으며, Bloomfield는

“언어 형식의 의미를 정확히 정의할 수 있는 것은 그 의미에 대하여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마련이 되어 있을 경우에 한한다. 이를테면 광물의 이름은 화학이나 광물학 술어(terms)를 가지고 定義할 수가 있다. ‘소금’이라고 하는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는 ‘염화나트륨(NaCl)’이라는 식으로 말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식물이나 동물의 이름도 식물학이나 동물학의 술어를 가지고 定義할 수가 있다. 그러나 ‘사랑’이나 ‘미움’과 같은 단어를 정확히 정의할 방법은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단어는 정확히 분류되어 있지 않은 場面과 관련되어 있고 또한 굉장한 多數 속에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²⁾

일반적으로 術語(terms)의 概念 문제에 대해서 John Locke는 그의 ‘인간오성론’(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1959)에서 우리 언어의 대부분이 일반 술어이며(general terms), 이 일반 술어는 특정한 존재물에서 시간성과 공간성을 분리시켜 抽象化·固定化해 놓은 것임을 밝혀 놓았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늘 쓰는 일반 술어적 표현은 時間과 空間의 조건과 분리된 추상성 때문에 일반성을 지닐 수 있게 되며, 또 그러한 추상성과 일반성 때문에 실제적으로 定義될 수 없는 것이다. 술어는 일반 관념의 기호로 되어질 때 비로소 일반적 성격을 갖게 된다. 그리고 우리의 관념은 그 관념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이라는 조건과 그 관념을 이것이나 저것이나라는 특수한 존재에게로 국한시키는 모든 관념을 떼어낼 때 비로소 일반적이 된다. 이러한 추상의 방법에 의하여 그

2) We Can define the meaning of a speech-form accurately when this meaning has to do with some matter of which we possess scientific knowledge. We can define the names of minerals, or example, in terms of chemistry and mineralogy, as when we say that the ordinary meaning of the English word Salt is ‘Sodium chloride(NaCl), and we can define the names of plants or animals by means of the technical terms of botany or zoölogy, but we have no precise way of defining words like love or hate, which concern situations that have not been accuratly classified—and these latter are in the great majority.

Bloomfield(1933), Language. p.289.

관념들은 하나 이상의 개체들을 表象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추상적 관념(개념)을 나타내는 모든 말들은 이러한 종류의 것이다. 이것이 소위 존·록크의 개념론(Conceptualism)이다.

그리고, 우리가 개념으로서의 단어(Words as Concepts)를 늘 듣고 사용하는 말은 문법이라는 특수한 질서[규칙] 체제에 의해 엮어지는 무수한 개념, 즉 단어의 연속이다. 글자나 말도 따지고 보면 개념을 시각[청각]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대하는 단어[어휘]는 그 하나 하나가 하나의 개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 다음 사항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① 해당 단어가 정확하게 무엇을 지칭 또는 의미하는가?
- ② 문맥이나 상황에 따라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가 어떻게 바뀌는가?
- ③ 그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Bedeutung Meaning)가 바뀔 때 일어나는 변화는 무엇이며, 이때 덩달아 생기는 어휘상의 변수는 무엇인가?

이러한 사항들에 유의하면서, 개념으로서의 단어들을 그 단어[또는 시어]의 기본 개념을 정확히 안 다음에 각 단어[시어]의 일차적 의미와 직접·간접의 연관성이 있는 단어들을 조사하여 그에 관련된 聯想語(associated words)와 그 단어[시어]의 의미와 쓰임[用法] 등을 알아 어휘력과 표현력을 넓혀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늘 대하는 단어들이 보통 하나에 대여섯 개의 다른 의미들과 연관성을 맺고 있는 연상어가 있듯이, 우리는 시어의 어휘(Vocabulary)와 의미를 동떨어진 시어[단어]로서가 아니라 보다 넓은 작품 속의 표현 체제의 일부로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詩語의 기본적인 의미에다 연상되는 의미를 파악한 다음 한 단계 나아가서 詩語의 의미를 넘어선 美的 表現으로서의 α 요소가 추가되어야 한다. 문학에서는 定義를 내리는 설명 방식, 이를 테면 指定, 例示 비교, 대조, 분류, 구분, 분석, 定義 등의 記述上의 설명 방식을 취하지 않고, 묘사나 叙事 식으로 작가의 기교상 작품 전체를 구성시켜 독자가 작품 전체의 의미를 스스로 깨달도록 하는 서술 방식이나 기교도 있다. 즉 표현의 미적 요소가 α 요소로 첨가되니, 이 점도 동시에 곁들여서 파악해야 시에 대한 세대로의 종합적 鑑賞이 이루어지는게 될 것이다.

4

언어의 諸機能 中 美的[Aesthetic] 기능이 있는데, 이 미적기능은 바로 詩的(Poetic) 기능을 말한다. 즉 말을 아름답게 꾸미거나 표현하려는 기능이다. 이는 表現美나 美的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우리가 表現美나 美的 價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美’에 대한 定義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美(beauty)’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시인 Keats는 “美는 眞이요, 眞은 美이다”라 했고, 實在論者들은 “‘이것은 아름답다’ 하는 것이 ‘이것은 사랑스럽다(lovely)’라고 하는 의미가 아님은 아마 眞일 것이다”라고 하면서 美的 情緒가 存在한다고 하였다.

우리들이 ‘美’라고 불리우는 경험이나 정서[감정]을 가질 때, 바꾸어 말하면 어떤 대상(사물)을 享受하고, 觀照하고, 讚美하고 또는 鑑賞하고 있을 때에는 그 중 어느 것인가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美的 價値를 추구하고 美意識을 갖기 위해서는, Ogden & Richards의 ‘美的 의미’(The Meaning of Beauty)에 대해 定義를 내린 定義表를 잠깐 보자.

‘美(beauty)’란,

- | | | |
|---|---|--|
| A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지 미라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지만 하면 — 무엇이든지 아름답다. 2. 특수한 형태를 가진 것은 — 무엇이든지 아름답다. |
| B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자연의 모방인 것은 — 무엇이든지 아름답다. 4. 媒體를 巧妙히 이용한 결과 생긴 것은 — 무엇이든지 아름답다. 5. 天才의 作品인 것은 — 무엇이든지 아름답다. 6. ① 眞理와, ② 자연의 정신이나, ③ 理想이나, ④ 보편적인 것이나, ⑤ 典型的인 것이나를 啓示하는 것은 — 무엇이든지 아름답다. 7. 幻影을 만들어 내는 것은 — 무엇이든지 아름답다. 8. 바람직한 사회적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은 — 무엇이든지 아름답다. 9. 表現인 것은 — 무엇이든지 아름답다. |
| C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0. 기쁨(즐거움)을 일으키는 것은 — 무엇이든지 아름답다. 11. 情緒를 刺戟하는 것은 — 무엇이든지 아름답다. 12. 특수한 감정을 증진시키는 것은 — 무엇이든지 아름답다. 13. 感情移入의 過程을 포함하는 것은 — 무엇이든지 아름답다. 14. 생명력을 高揚하는 것은 — 무엇이든지 아름답다. 15. 例外的인 性格에 접촉시키는 것은 — 무엇이든지 아름답다. 16. 共感覺을 생기게 하는 것은 — 무엇이든지 아름답다. |

여기서 A의 1은 단순한 命名이요, 2는 時間과 空間 관계에 의한 정의며, B의 정의는 다소 복잡하다. 因果, 類似, 認識, 의욕 등의 諸關係의 복합물에 의한 정의이며,

C의 정의는 사물이 意識에 미치는 效果 관계에 의한 정의이다.

※ 원문에는 '무엇이든지 아름답다'가 앞에 있지만, 필자가 해석의 편의상 뒤에 두었다. 원문을 참고할 것.

- A { 1. Anything is beautiful—which possess the simple quality of beauty.
- 2. Anything is beautiful—which has a specified Form.
- 3. Anything is beautiful—which is an imitation of Nature.
- 4. Anything is beautiful—which results from successful exploitation of a Medium.
- 5. Anything is beautiful—which is the work of Genius.
- B { 6. Anything is beautiful—which reveals ① Truth, ② the Spirit of Nature, ③ the Ideal, ④ the Universal, ⑤ the Typical.
- 7. Anything is beautiful—which produces Illusion.
- 8. Anything is beautiful—which leads to desirable Social effects.
- 9. Anything is beautiful—which is an Expression.
- C { 10. Anything is beautiful—which is an Pleasure.
- 11. Anything is beautiful—which excites Emotions.
- 12. Anything is beautiful—which promotes a Specific emotion.
- 13. Anything is beautiful—which involves the process of Empathy.
- 14. Anything is beautiful—which heightens Vitality.
- 15. Anything is beautiful—which brings us into touch with exceptional Presonalities.
- 16. Anything is beautiful—which induces Synaesthesia³⁾

여기 Ogden & Richards의 '美의 의미'에 대한 美의 定義表를 보면, 美의 領域은 예술 작품 이외에까지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하기에 이밖에도 우리는 질서나 규칙의 조화에서 오는 調和美, 순수미, 知性美, 건강미, 敎養

3) Ogden & Richards(1923), The Meaning of Meaning. pp.142~143.

美, 諧謔美, 滑稽美, 崇高美, 優雅美, 悲壯美, 울동미, 嬌美(Reizende), 華麗美, 悲劇美, 感動美 등이 모두 美的 차원에서 美的 要素로 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美的 요소가 문학에서의 表現美를 낳게 한다.

이처럼 우리는 한 편의 시를 이해하는 데도 그 시에 쓰인 詩語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 작품 전체에 대한 시 鑑賞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시를 해석하는 사람이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가 그 시에 대한 가치 평가가 달라진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 편의 시 작품에서 우선 그 詩語의 의미를 완전히 파악하여 해석하고 감상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한 점에서 일찌기 Bradley는 그의 ‘詩의 講義’(Lectures on Poetry)에서 “시는 精靈이다. 그 어디에서 왔는가를 우리들은 모른다. 그것은 우리들 뜻대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거니와, 우리들의 언어로서 대답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下人이 아니라, 主人이다.” 라고 말하였다. (방점은 필자가 표시한 것임)

5

언어학자들은 의미론의 주된 관심사가 언어의 ‘의미’를 연구하는데 있다 하여, 의미란 무엇인가? (What is meaning)의 물음에 대해 의미의 본질을 찾기 위해 ‘의미’의 개념부터 定義하고자 지금까지 많은 시도가 진행되어 왔었다. 그런 면에서 ‘의미’ 규정에 대한 諸說을 보기로 한다.

1) 스위스의 구조주의의 창시자인 쏘쉬르(F. de Saussure)는 말의 外面形式을 씨니피앙(Signifiant, 音記)이라 하고, 그 내용을 씨니피에(signifié, 意記)라 하여 언어는 이 둘이 결합한 하나의 언어 기호(Sign)라고 했다. 이 둘의 二元的 구조에서 사물이 사람의 머리 속에 청각영상[씨니피앙]으로서 殘存한 것[씨니피에, 概念]이 ‘意味’라고 하였다.

2) Ullmann은 Name[명칭]과 Sense[개념]에 해당하는 것이 언어인데, 이 둘의 상호 환기의 관계를 ‘의미’라고 했다.

3) Bloomfield는 언어 의미의 본질을 행동주의 이론에 입각하여 자극(Stimular)과 반응(Response)의 관계로 행동설로서 의미를 불려고 하였다.

3) Ogden & Richards는 언어의 음성인 상징(Symbol)과 내용인 Reference

[지칭, 개념]와 말이 지시하는 事物[Referent, 지칭대상]과의 세 사항 사이에서
의 관계를 논한 그의 指示說에 의하면, 언어는 상징[기호]의 일종이며, 의
미란 상징으로서의 언어가 事物을 가리키는 정신 작용[Thought, Meaning]으로
보았다.

4) 전통 논리학의 觀念 또는 心象 이론에 의하면 의미는 그것을 아는 어떤 사
람의 마음 속에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觀念 또는 概念(Concept)으로 보았다.

5) 비트겐슈타인(Wittgenstein)은 使用說을 주장하면서, 어떤 말의 의미는 단
지 그 단어의 용법(use)에 따라 확인되며, 어떤 단어의 의미는 그 사용(use)이
라고 했다. 즉, 문맥상에서 추출된 그 말이 문맥에서 사용[運用] 중에 작용하
는 모습이 '의미'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the meaning is use theory[사용
즉 의미이론]을 내세웠다.

6) Hayakawa(하야카와)는 문맥이 의미를 결정한다는 관점에서 外在的 意味
(extensional meaning)와 內在的 意味(intensional meaning)로 구별하여, 이 둘이
서로 혼합되어 일정한 단계(level)로 抽象된(abstraction) 것이 '의미'라는 견해
다.

7) 최근의 眞理條件說은 文(sentence)을 중심 단위로 논리적·필연적으로 문
의 진리가치[진리치]에 의해 문장의 眞·僞를 가려내려는 것으로, 한 표현의
의미는 그것을 담고 있는 문들의 진리-조건[truth-conditional]에 대한 공헌
이타로 본 의미 규정이 있다.

8) 發話意圖說이 있다. 이는 발화[discourse, Text]를 단위로 화자의 의사
소통과정에서 '화자의 발화 意圖'가 '의미'라고 본 규정이다.

'의미'에 대한 이들 諸說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은 '의미' 규정의 諸說⁵⁾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 전문 분야의 요
청이나 목적에 맞추려는 필요한 욕구 때문에 '의미'를 여러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 규정에 대한 諸說은 한마디로 그 관점이 각기 다른 '기준틀
(frame of reference)'을 시발점으로 하여 의미를 정의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각기
다른 정의가 이루어졌다. 바로 이러한 '의미' 규정의 한계성은 단어(어휘)가
갖는 기능[작용]의 多樣性에서 야기된다. 그리고 언어가 갖는 諸機能의 多樣
性은 곧 의미 규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의 하나이다.

5) 崔昌烈(1981), '意味' 규정의 限界性, 국어교육 39·40호, 참조.

〈意味 규정의 諸說〉

型	諸 說	觀 點		단 위	비 고	
A	심리현상 型 ① 개념설 ② 心象說 ③ 思想說	심리·행 동주의	기 본 적 의 미	단 어 (어휘)	'의미' 자체의 개념 규정	
B	지시대상 型 ④ 지시물설	물리주의				
C	문맥장면 型 ⑤ 반응설 ⑥ 場面說 ⑦ 分布說 ⑧ 意味關係說	의미 주변	문 맥 적 의 미			'의미'에 부수 된 주변(근접) 관계를 파악하 려는 규정
D	⑨ 使用條件說[用法說]					
E	⑩ 眞理條件說	논리적(성)	문			
F	⑪ 發話意圖說	의사소통과정	담 화	화자의 의도에서 본 의미 규정		

- ※이 도표의 諸說로서 일상언어의 의미에 대한 규정을 세 항목으로 요약하면,
 1. 어휘의미의 본질 규정; ①~⑨설
 2. 文의미의 본질 규정; ⑩설
 3. 의사소통의 담화(discourse) 과정에서 본 규정; ⑪설이 됨.

이처럼 의미 규정의 한계성에서 오는 의미 규정의 어려움이란, 원래 의미란 감각할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고, 관찰할 수 없는 하나의 認識作用이며 정신작용인데다가 '의미'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 의미를 實體化하여 정확하게 '의미'를 記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意識의 진전 과정(stream of conciousness)을, 意識→知覺(Visual Perception)→聯想(associative imagination)의 언어 철학적인 면과, 情緒(emotion)→價値(Value)의 문학적인 측면으로 구분하고, 이 가운데 의식과 지각을 통해서 기본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연상을 통하여 문맥적 의미로 多樣하게 轉移되며, 정서와 가치를 통하여 정서적 의미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즉,

- ① 기본적 의미 → ② 문맥적 의미 → ③ 정서적 의미로 진행된다.
 (의식·지각된 의미) (현상된 의미) (정서·가치를 동반한 의미)

그러하여, '의미'란 그 어느 관점에 지 구상하여도 항상 하나의 규정 밖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몇몇 학자들은 '의미'의 多面的 定義를 몇 가지로 구분하여 의미의 多面的인 定義를 시도하려고 하였다. 그 몇몇 학자들의 意味 類型을 들면 다음과 같다.

1. G. Stern의 의미 분류⁶⁾

- ① 본질적 의미와 사실적 의미
- ② 일반적 의미와 특수적 의미
- ③ 능수적 의미와 지지적 의미
- ④ 고정적 의미와 유동적 의미
- ⑤ 기초적 의미와 관계적 의미

2. Hartman, Stork의 의미 구분

- ① 어휘적 의미(lexical meaning) : 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의미.
- ② 문법적 의미 : 문법에서 기능상(functional), 구조상(structural)의 의미
- ③ 지지적 의미(referential meaning) : 대상물과 개념 사이의 지지 관계에 의한 의미.
- ④ 문맥적 의미(Contextual meaning) : 남과와 狀況 사이의 관련되는 의미.
- ⑤ 확장적 의미(extended meaning) : 지층차층 넓혀지는 의미.
- ⑥ 특수적 의미(Specialised meaning) : 좁혀지는 의미로서 특수하게 쓰이는 의미.
- ⑦ 애호적 의미(Connotative meaning) : 화자가 어떤 내용을 담아서 전하는 정서적 의미. 함축적인 含意(implication meaning).
- ⑧ 외연적 의미(denotative meaning) : 한 단어가 여러 사물을 지시하는 데 적용될 수 있는 범위로서의 의미.

6) Stern: 1931., Meaning and Change of meaning.

3) Leech가 설정한 의미 유형⁷⁾

- ① 개념적 의미(Conceptual meaning) : 논리적, 인지적, 외연적 내용의 의미· 중심의미(기본의미), 필수적, 고정적 의미.
- ② 내포적 의미(Connotative meaning) : 언어가 지시하는 전달 가치(Virtue)에 의한 의미.
- ③ 문체적 의미(Social meaning) : 사회적 환경에 의해 전달되는 의미.
- ④ 환정적 의미(Affective meaning) : 화자나 청자의 감정[emotion, 정서] 및 태도에 의하여 전달되는 의미. 잠재적 의미.
- ⑤ 반사적 의미(Reflected meaning) : 하나의 의미가 다른 의미에 대하여 反映의 일부를 낳게 하는 경우 생기는 의미. 詩語의 정서적 의미에 해당하는 것.
- ⑥ 어휘 배열적 의미(Collacative meaning) : 共起關係⁸⁾에 의해 성립되는 의미. 단어와 단어와의 결합[배열]에 의해 전달되는 의미.
- ⑦ 주제적 의미(Thematic meaning) : 語順이나, 초점, 強勢 등에 의해 전달되는 의미. 화자의 意圖의 意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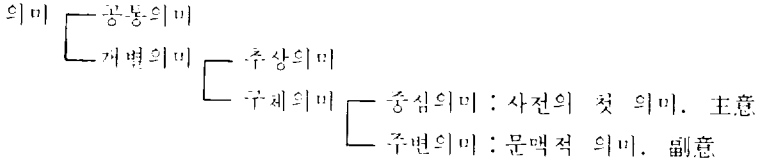
여기서 ②~⑥의 의미는 ①의 의미에서 파생된 聯想意味(association meaning)로 주변적이고, 可變의이다. 그리고 ⑦의 의미는 화용론적 성격을 띠고 있다.

7) Leech(1974), Semantics. pp.9~23.

沈在箕外2명(1984). 意味論序說, pp.19~24.

8) 共起關係(Co-occurrence relation)란 문법적인 이탈성(deviancy) 일으키지 않고 다른 문법 요소와 동일한 문장, 구, 단어 안에서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관계를 나타낼 때, 그 두 요소는 공기관계를 갖는다고 한다. 즉 호응, 일치, 선택의 제약의 세 경우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잘 생긴 남자'와 '예쁜 남자'라고 했을 때 통사구조는 틀리지 않지만, 어휘의 共起關係에 있어서는 '예쁜 남자'가 어색하다.

4) 허발(1979): '날말밭이론'에서의 의미구분



여기서 Leech는 '의미'란 앞의 ① 개념적 의미를 주축으로 하여, ② 내포적 의미, ③ 문체적 의미, ④ 환정적 의미, ⑤ 반사적 의미, ⑥ 어휘 배열적 의미, ⑦ 주제적 의미 등의 多面的인 전달 가치(Value)를 지닌 것으로, 의미의 多樣的 성질을 규정해 보려고 하였다.

Leech가 설정한 7 가지의 의미 유형에서의 문제점은, 聯想意味인 내포적 의미와 환정적 의미가 서로 혼동되어 사용되기도 하고, ①~⑥까지의 의미가 때때로 의미 범주상 동요(oscillation)가 생겨 중복(over-lapping)되거나, 共存하며, 混入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Leech의 의미 유형은 사실상의 의미 영역상 각 의미들 간에 뚜렷한 경계(boundary)를 책정하기가 힘든 문제점을 갖고 있다. 즉 의미 규정의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 [최창렬(1981)] 이는 근원적으로 '의미'란 그 자체의 추상성이나 불투명성에 기인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국어 어휘의미론에서 어휘의 의미 분류를 세울 때, 개념적 의미[중심의미, 기본의미]를 주축으로 하여 연상의미는 주변적 의미로서 파악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어휘(단어) 의미는 概念論 또는 觀念論의 문제임으로 하나의 분류[類型]만으로 정의되거나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의미가 서로 넘나드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흔히 어떤 말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 어떤 다른 분야의 개념이나 용어를 빌어와서 '의미'의 규정을 정의하려는 시도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보다는 의미에 관한 본질적인 연구 그 자체에 접근해서 의미란 무엇인가? 하는 우리의 의심(문)을 풀어나가는 태도가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본다.

사실, 우리가 단어[어휘]와 문(sentence), 발화(discourse) 등의 언어적 표현

등에 대한 의미를 연구한다는 것은, 그 언어적 표현들을 보다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으며 바르게 표현하여 언어의 본질에 가까운 언어의 유의미성(meaningfulness)을 갖도록, 또 우리말의 올바른 표현·사용을 위하여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결해 나가는 방향이 온당하리라 본다.

6

앞에서 본 諸意味類型 中 특히 反射的 意味(Reflected meaning)는 詩的 의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詩語의 의미 해석에 중요하다. 예를 들면 시에서 흔히 ‘님’이라는 시어는 ① 왕, ② 조국, ③ 선배자, ④ 先親, ⑤ 가리키는 異性間的戀人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를 달리 말하면 은유적 의미가 있어서 상징적 의미가 들어난 셈이다. 그래서 “의미는 은유의 무덤이다”라고 말할 정도이다.

앞의 이러한 諸意味 類型과는 달리, 시에서는 흔히 ① 상징적 의미, ② 정서적 의미, ③ 함축적 의미[은유적 의미], ④ 外延, ⑤ 內包的 의미 등도 다루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고려하여 詩語의 의미를 이해하여서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α 요소의 의미들, 즉 表現美의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美的 要素들을 효과적으로 살리고, 수사 기교상의 表現法도 아울러 종합적으로 파악하여야만 세미인의 지를 이해하게 되어 올바른 詩 鑑賞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까지의 記述에서 보았듯이 하나의 낱어 또는 詩語가 갖는 諸意味가 때로는 포괄적이고 함의적일, 즉 함의의 포괄성(Comprehensiveness)을 이렇게 정면적이고 단순한 언어반으로 다 설명하여 記述할 수 있을까? 가 의문으로 남는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언어의 의미’에 대한 諸理論中, 시에서 ‘詩語의 의미 해석’에서도 詩語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一助가 되었으면 한다.